

# 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2. 28.(일) 17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한윤덕 주무관 함인화
		전화번호	033-650-0347

## 강원영동 대설, 강원도 많은 비

- 강원영동 중심 최대 50cm 매우 많은 눈 주의
  - 3월 1일 낮~2일 오후 10~40cm(많은 곳 50cm 이상), 대설 주의
- 강원도 30~80mm(많은 곳(남부내륙 제외) 100mm 이상) 많은 비
  - 3월 1일 낮에 많은 비 집중(천둥·번개, 돌풍 동반 주의)
  - 1일 낮부터 비→눈 강수형태 변화, 빙판길 주의



[ 3월 1일 밤,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]

- 강원지방기상청(청장 한윤덕)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3월 1~2일(월~화) 강원도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. 이 기간동안 강원도는 많은 비(최대 100mm), 강원영동을 중심으로는 폭설(최대 50cm 이상)이 예상된다며, 많은 비와 눈이 각각 다른 지역에 예상되는 만큼,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.
- 한편 최근 강원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이 이어진 상태에서 이번에 내리는 비나 눈으로 인해 대기의 건조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.

## [ 기압계 전망 ]

- 강원지방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이 1일 오후에 서해상, 저녁~밤에 중부지방을 지나 2일 새벽 동쪽지방을 경유하여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1일 새벽~오전에는 저기압의 오른쪽에서 발달한 따뜻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강원도는 주로 비가 내리겠고,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며 비의 양이 많은 반면,
- 저기압이 동쪽지방으로 이동하며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됨에 따라 기온이 점차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, 강원도는 낮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겠다고 전망하는 한편, 1일 낮~2일 아침에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
## [ 강수 전망 ]

- 3월 1일 새벽(03시)부터 강원내륙에 비가 시작되어 오전에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,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오전(09~12시)부터 강원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, 오후(15~18시)부터 강원내륙과 강원동해안에도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다. 이후 강원영서는 2일 새벽, 강원영동은 오후(15시)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특히, 1일 낮에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로 인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며, 천둥·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고,
- 1일 낮~2일 아침, 강한 강수를 동반한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영동으로는 최대 50cm 이상(강원영서 최대 15cm)의 매우 많은 눈도 예상되어 대설특보 발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.
- 대설 예비특보 현황
  - 3월 1일 낮: 강원북부산지, 강원중부산지, 양양평지, 고성평지, 속초평지
  - 3월 1일 저녁: 강원남부산지, 삼척평지, 동해평지, 강릉평지, 태백
  - 3월 1일 밤: 양구평지, 정선평지, 평창평지, 홍천평지, 인제평지, 횡성, 춘천, 화천, 철원

### < 예상 강수량 (3월 1일 새벽(00시)부터 2일 오후(15시) 사이) >

- 강원도: 30~80mm(많은 곳(남부내륙 제외) 100mm 이상)

### < 예상 적설 (3월 1일 아침(09시)부터 2일 오후(15시) 사이)>

- 강원영동: 10~40cm(많은 곳 50cm 이상)
- 강원영서(남부내륙 제외): 5~15cm
- 강원남부내륙: 3~8cm

- 이번 기간 동안, 강원도는 많은 비,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(대설)이 예상되고, 강원도에는 천둥·번개와 돌풍이 동반되며, 눈이 비교적 무거운 특징이 있어 축사 및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- 아울러, 1일 낮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,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노면이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등, 빙판길로 인해 출근길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,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.

## [ 풍랑 전망 ]

- (풍랑) 동해중부전해상은 1일 오후부터 물결이 높아져 3일까지 최대 4~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.
- 특히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넘거나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,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.